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새로 나온 책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영문판 제2권, 중문판 제3권)

전자책으로 나온 영문판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제2권”의 인쇄본 출간과 함께 중문판 문답록 제3권이 포켓 사이즈로 출간되었다. 이 책들에는 최신 뉴스잡지 내용 중 선별한 질의응답과 귀중한 스승님의 생활사진들이 실려 있다. 또한 범주별,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책 전편에 흐르는 삶 전반에 대한 스승님의 명쾌한 답변은 여러분에게 수행을 이끌어 줄 크나큰 지혜의 보고가, 친구와 친척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QandA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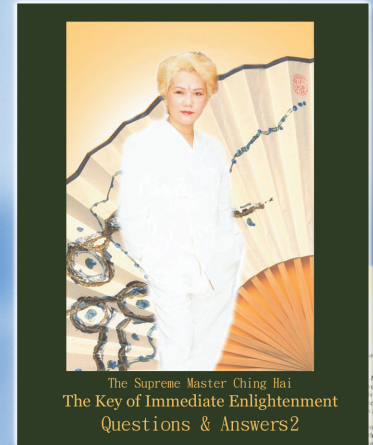
<http://www.Spiritual-Discovery.org/publication/books/qa2> (미국)

전자책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2권 (영문판)”은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book/download/>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com/eBook/> (미국)



새로 나온 뉴스잡지 CD 111호-120호

(중문판)

내용: 중문 · 영문 인터넷 버전 / 중문 인쇄본



동수들이 뉴스잡지를 보다 쉽게 소장할 수 있도록 최근 111호-120호 뉴스잡지 CD가 발행되었다. 이 CD는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간편하고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CD에는 특별히 원본 오디오/비디오 파일로 된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와 스승님의 농담이 곁들여 있다.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이 특별한 영혼의 양식을 즐길 수 있다. (기타 외국어판 CD는 추후 발행될 예정임)

앞표지 안 / 영혼의 고양

새로 나온 책/ 새로 나온 뉴스잡지 CD 111호~120호

02 다채로운 이벤트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포모사/ 미국/ 캐나다

10/ 22 수행 상담소

두뇌 길들이기 / 진정한 명상은 내면의 성심에서 비롯된다

11 스승님의 농담

후광이 너무 꼭 껴서.../ 처가집에 가면/ 우리 아빠는 하느님?/ 날마다 신는 양말때문에

13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천국으로 가는 빛과 소리의 길

1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20 영화 이야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21 스승님 말씀

인생의 진정한 의미

22 감로법어

23 관음가족

어머니의 마음

24 신기한 감응

진정한 효도의 길/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떠나신 아버지

26 지혜어록

관음 만능 보험회사

27 수행일화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

28 이야기 세상

산중기담(山中奇談)-스승님의 사랑이 일구어낸 기적들

30 칭하이 무상사 TV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칭하이 무상사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자

31 어둠 속의 등대

타이난 교도소 영성 세미나/교도소 교화활동

31 음악과 삶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공연 그 이후...

34 매체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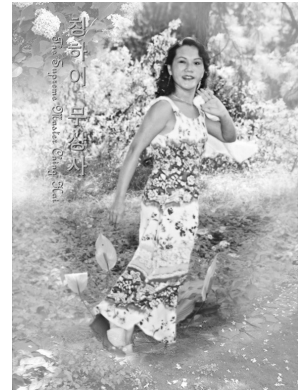
도통민씨와의 인터뷰

36 관음 웹사이트

37 전세계 연락처

뒷표지 안/ 무상예술

해피 요기 세상- 꽃의 노래



마음이 행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2호

출판일자 : 2001. 12. 23.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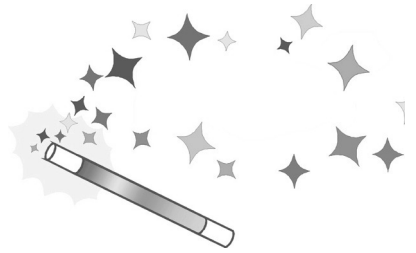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군마 동수들이 비디오 강연회와 채식 요리 강습에 친지와 친구들을 초대하다

일본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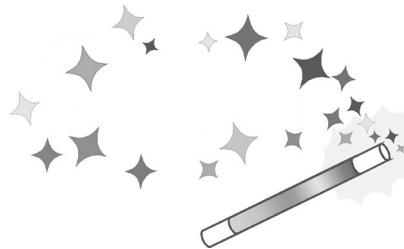
몸과 영혼을 고양시키다

[군마] 2001년 4월 10일 군마 센터는 관음법문 비디오 강연회를 열고 채식을 권장하는 활동도 했다. 군마의 봄철은 보통 빠가 시릴 만치 매서운데, 이 날은 격려라도 하듯 태양이 비춰 날씨가 따사로웠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친구와 친지를 신실하게 초대했다. 이 날 행사는 정답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스승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를 상영하며 시작됐다. 이어 스승님의 2000년 도쿄 강연 비디오도 상영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나자 관음사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

적과 관음법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열렬한 질문 공세와 함께 방편법과 입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다음에는 관음사지의 채식요리 강습이 진행되었는데, 단시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두 가지 채식요리는 맛, 향, 모양까지 아주 맛있어 보였다. 많은 방문객들은 시식 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집에서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고기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질색하는 한 숙녀는 “이렇게 맛있는 채식고기가 비린내도 안 나는군요” 하며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집에서 가족들과 즐길 채식요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었다. 손님들은 관음사지에게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희망했다. 채식을 장려하는 이런 활동들이 일본의 구도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관음가족의 일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말레이시아 소식



조호바루에 영성의 씨앗을 심다

[조호바루]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동수들은 조호바루의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한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강연회는 2001년 3월 24일 그랜드 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는데, 열정과 협동심이 가득한 많은 동수들이 최선을 다해 많은 준비과정을 맡아 훌륭히 마무리지었다.

강연회 당일, 동수들의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세찬 소나기가 내려 이 도시의



방문객들에게 채식 간식과 음료를 대접하다



스승님의 출판물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



청중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주의깊게 시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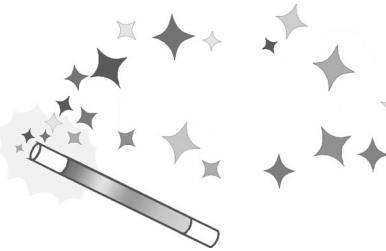
유형 무형의 만지를 씻겨 냈다. 강연회가 열릴 호텔 강당은 원래 초라하고 음습했는데, 이젠 여기 저기 놓인 활짝 핀 연꽃과 금장식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모되었다.

스승님의 그림과 천의들도 아름답게 전시되었으며, 한 사저가 장식한 곳곳에 놓인 녹색식물과 오색 꽃 장식은 따스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어 일이 끝난 후 우리는 동수들이 발휘한 숨은 창조력에 감탄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진 결과는 정말 장관 그 자체였다. 분위기가 조성되자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인연있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겐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나눠 주었다. 잠시 후 강당은 방문객으로 만원을 이뤘다.

강연회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 매료되어 꼼짝도 하지 않고 비디오를 시청했다. 강연회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고 방편법을 배웠다. 이렇게 하여 조호바루에 영성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다.

강연회는 참석자들에게 맛있는 채식으로 만든 간식을 대접하며 막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토록 보람있는 행사를 통해 사랑의 길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스승님께 감사하며 그 축복을 나누다

[인도네시아]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인도네시아의 동수들은 모두 스승님의 은총과 무수한 기적과도 같은 체험들로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무사할 수 있었다.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는 폭도들이 길거리의 집집마다 다니며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다.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사형은 폭도들이 바로 옆의 집까지 오자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저 힘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셨다. 나중에 삼매에서 깨어보니, 폭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또 다른 한 사형은 집에 가던 중, 타고 있던 버스가 반란군의 제지로 정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치기 마련인데, 이 버스는 거대

한 흰 빛에 감싸여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1998년 한국 국제선에 참석했던 한 사저는 원래 예정보다 하루 일찍 자카르타로 돌아오게 되었다. 휴가 중이던 그녀의 부모님은 사저가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당초보다 일찍 돌아와야 했는데, 나중에 그들은 부모님이 머물렀던 호텔이 그들이 떠난 직후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각기 도착하게 되자 그 사저의 여동생은 사저를 태운 후 부모님을 태우러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착오로 부모님을 먼저 만난 후 사저를 태우게 되었다. 이 실수로 시간이 늦어져 예약했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식당도 그 날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일들로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스승님에 대한 신심이 더욱 깊어졌다. 동수들은 스승님과 신께 감사드리는 한편, 앞으로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포들의 영성을 높이는 것뿐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나라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이 자리잡게 될 것이란 걸 깨달았다. 이에 치안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강연회의 성공에 힘을 얻은 동수들은 올해에만 욱아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등에서 세 차례나 강연회를 개최했다. 각 강연회마다 열렬한 호응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과 입문을 신청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라바야 강연회가 지역신문인 자바포스트 건물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그 신문사의 편집장은 칭하이 무상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승이란 걸 알고 나서 자진하여 회의실을 두 칸이나 내주었고, 기자들에게는 이 행사를 보도하라고 지시했다. 강연회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이 성공적인 강연회를 기사로 보도했는데, 특히 스승님이 직접 참가하지 않은 비디오 강연인데도 수백 명이 참석한 사실에 놀라워했다.

동수들은 이런 흥법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자 동포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인도네시아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영적인 지복으로 가득 찬 선삼

[산호세] 코스타리카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는 기념주간을 가졌다. 산호세 센터는 이 휴일 동안 선삼을 개최해 많은 동수들이 참가했다.

선 행사 동안 센터에는 고귀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신의 사랑과 축복을 느낀 동수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스승님의 사랑 덕분에 스페인어 자막이 들어간 최신 비디오 테이프가 이번 선에 때맞춰 도착하여 우리는 스승님의 강연 테이프 3편을 다 볼 수 있었다. 한 사저는 비디오의 내용이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 꼭 맞는 해답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은 동수들에게 함께 모여 신의 사랑의 힘을 충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포모사 소식

포모사 전국 종교 박람회



[지아이] 올해 포모사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원린 현 토우난 경기장에서 전국 종교박람회를 개최했다. 수많은 종교 및 수행 단체, 토속신앙 단체들이 '쿰바멜라'의 축소판을 방불케 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이 행사 후원자들의 초청으로 이 대규모 행사에 참가했다.

박람회는 경기장의 넓은 잔디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시후 센터 동수들이 가져온 '햇빛 가득한 숲속'이란 대형 유화 덕분에 우리 전시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미리 맞춘 것 처럼 주변의 푸른 잔디와 잘 어울리는 그림은 신의 사랑이 충만한 천상의 모습을 생생히 연출해 우리 전시대는 행사장 내에서도 큰 주목을 끌었다.



전국 종교 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전시대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전시대에는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한 방문객은 우리 전시대에 다가올수록 내면을 어루만져 힘을 주는 듯한 아주 미묘한 향기를 맡게 된다며 우리에게 전시대 주변에 향수를 뿌렸다고 물었다. 또 어떤 방문객들은 하루 종일 우리 전시대에 앉아서 상영되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신통력이 있다고 하는 한 여인은 동수들에게 “여러분은 외계인과의 혼혈처럼 보여요”라고 말하며 스승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동수가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마음으로 스승님과 통하면 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 정말 그렇군요!”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스승님과 내적 교류에 깊이 잠긴 채 자리를 떠났다. 오래 전 입문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던 몇몇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에 가까이 다가서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끝에 어머니를 찾은 미아처럼 감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넷째 날엔 관음법문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관음사자가 방편법을 전수했다. 전국 종교박람회 5일 동안, 참가했던 모든 동수들은 깨달은 스승과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열망을 보며 신의 축복으로 충만해졌다.



포모사 불교 법성보림협회는 행사에 참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에게 추천 증서를 증정했다.



지상정토 자선 바자회

사단법인 포모사 불교 법성보림협회의 초청으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4월 8일 지아이 시립 야구 경기장에서 개최된 '지상정토 자선 바자회'에 참가했다. 이 행사의 취지는 노인과 불우 가정

어린이 및 장애인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 당일 아침, 동수들은 전시대를 아름답게 꾸미고, 바자회를 위한 전통 채식요리를 준비하는 한편, 스승님의 가르침과 예술 창작품을 전시하고 견본책과 뉴스잡지를 무료로 주어 사람들이 맛있는 채식요리를 맛보면서 내면의 영성 또한 충만해져 스승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동수들의 일심협력한 끝에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까오핑 리우치우 홍법

[리우치우] 리우치우 마을은 핑둥의 동향에서 남서쪽으로 8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순수하고 소박하며 인정이 많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리우치우 항공소의 초청으로 4월 9일 무료진료와 채식식품 시식회,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길게 줄을 서서 무료진료를 받았다. 강연회장 또한 인파로 가득 찼다. 40여 가지의 채식식품은 평이 좋았으며 주민들의 아낌없는 극찬을 받았다.

리우치우의 차이 향장(鄉長)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번 행사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차이 향장은 지난 4,5년 간 리우치우 주민들이 이처럼 큰 관심을 갖고 참가한 행사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며 관음법문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돌아갈 때 친히 항구까지 나와 배웅했다. 우리는 배에 오르며 이 잊을 수 없는 홍법 여행을 끝마쳤다.



채식식품 시식회에 모인 주민들. 미식가도 맛있는 요리에 깊은 인상을 받다



진지하게 비디오 강연을 시청하고 있는 리우치우 주민들



큰 호응을 받은 무료진료실에는 리우치우 주민들이 긴 줄로 서 있다

미국 소식



사랑의 씨앗을 뿌리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스승님께서 어바인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연하신 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 후 LA센터 동수들은 산타아나와 LA시내 근방의 한인타운, 오렌지카운티에 널리 퍼져 있는 히스패닉 지역 등 LA 다민족지역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해 왔다.

2001년 3월 17일,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의 인도인 지역사회 중심지인 사나타 달마 사원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고 수행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다. 경험 있는 동수들이 강연장 임대 및 전단지 배포, 음식 준비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맡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마침내 강연회 당일이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동수들은 사원을 꾸미고 접수처와 수행 상담소, 예쁜 책 판매대를 준비했다.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과 그림, 정교한 만세등으로 인해 우아하게 빛나는 행사장에는 인도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찾아왔다. 이날 상영 비디오는 스승님께서 1993년에 하셨던 ‘자신을 용서하라’였는데, 그것은 스승님이 다른 힌두 사원에서 말씀하신 비디오여서 방문객들은 마치 스승님이 그 자리서 말씀하시는 듯 강연에 쏙 빨려 들었다.

비록 인도 지역사회에서의 흥법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가장 잘 조직된 활동이었다. 스승님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많지는 않지만 관음법문의 씨앗이 이제 세리토스에 뿌려졌으니 조용한 물에 던져진 조약돌의 반향처럼 그 잔물결이 멀리, 널리 퍼질 것이다. 어떤 씨앗은 당일 꽃을 피웠지만, 나중에 싹이 트는 것도, 다른 생에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의 안배로 이루어질 것이다.



LA 센터 동수들이 서 캘리포니아의 인도인 지역사회 중심지인 세리토스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다



길 잃은 영혼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다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센터를 찾은 관음사자의 귀한 방문을 맞아 인디애나 동수들은 2001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 차례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회는 인디애나의 수도인 인디애나폴리스의 3개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는데, 강연회 수주 전부



인디애나 동수들은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성
스런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터 전단지와 포스터를 시 전역에 배포하고, 지역 신문에도 몇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 강연회 기간 내내 채식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였는데, 어떤 방문객들은 세 번의 강연회 모두 참석해 스승님의 책과 테이프를 가져갔다.

마지막 강연회 이틀 전, 캐나다와 미시간, 일리노이즈, 켄터키,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미국 중서부 센터 동수들은 관음사지와 선이행사를 열었다. 모두들 좋은 명상을 하고, 또한 관음사지와 강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다른 주의 동수들도 돌아가며 가까운 시일 내에 소속 센

터에서 강연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했다.

강연회가 끝난 주말 방편법 단체명상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인디애나 센터는 더욱 활기 넘치게 되었다. 세계 도처의 길 잃은 어린양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



갈망하는 영혼들이 마침내 스승을 찾다!

[뉴욕] 2001년 3월 23일 뉴욕 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전단지를 시 전역에 배포하고 관음 웹사이트에 이번 행사를 공고했다.

강연회 당일 아침, 준비 팀은 단체명상을 마친 후 강연장인 고등학교 강당에 모였다. 스승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운데, 동수들이 열성적으로 준비작업에 참여해 강당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꽃과 리본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우아한 천국이 되었다. 스승님의 많은 출판물과 예술품, 비디오 테이프, 만세등 등이 전시되었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에 매료되어 전시장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입문자들은 또한 채식 음식 전 시대에서 다양한 건강식품 및 유기농 식품을 선보이고, 간식으로서는 맛있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방문객들은 채식식품의 다양함과 풍미로 많은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강연회는 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스승님의 1999년 에든버러 강연이 시청자들의 진지한 관심 속에 상영되었다.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수행에 관해 질문해왔다. 동수들은 방문객의 약 70%가 방편법을 신청한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 방편명상을 하고 난 후, 이미 채식을 하면서 10년 동안 다른 명상법을 수행하던 한 사람은 그날 30분간 명상하는 동안 생전 처음 천둥소리와 눈부시게 빛나는 빛을 보는 등



진선미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
뉴욕 에서의 비디오 강연회



의 놀라운 내적 체험을 하고는 바로 입문신청을 했다. 그는 “스승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다. 또 한 한 한국 여성도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해 줬는데, 강연회 전 그녀는 출판물 부스의 스승님 사진 속에서 화신 스승님이 나와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걸 보았다고 한다! 이런 내면의 체험은 다시 한번 무소부재한 스승님의 힘을 증명했다.

뉴욕 입문자들에게 이번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기쁜 마음으로 이타적인 헌신의 마음을 경험하고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캐나다 소식



일을 통해 얻은 멋진 체험

[몬트리올] 2001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몬트리올 센터 입문자들은 제33회 몬트리올 국제 ESP 박람회를 맞아 매년 수천 명의 구도자들이 신실한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이 박람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기로 했다.

박람회 준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전처럼 사랑하는 스승님의 일을 통해 전해지는 신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원래는 박람회 부스 예약이 마감되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행사 시작 약 열흘 전에 주최측에서 두 자리가 남았으니 참여해도 된다는 전화가 왔다. 전시대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리가 놓친 모든 것들이 마치 마술처럼 맞아 들어가 제시한 시간에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런 박람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리가 무료책자와 무료 명상법을 제공하는 것에 놀라워했다. 또한 스승님의 비디오 상영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가 있던 날, 우리는 부스를 찾은 구도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답해 주면서 스승님의 화신 등 일부 수준 높은 질문 내용에 무척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스에서 나오는 빛에 깊이 매료되기도 했다. 천안이 열린 한 사람은 스승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스승님을 계속 따라라고 격려했다. 더불어 그는 스승님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도 보인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얻었고, 서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몬트리올 동수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신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법을 배우다

두뇌 길들이기

청하이 무상사 / 1999. 6. 11. 영국 노퍽 국제선상 (원문 영어)

질문: 저는 계속 긴장된 채 싸우는 중입니다.

스승님: 무엇과 싸우나요?

질문: 명상과요..

스승님: 아, 명상을 일로 삼지 마십시오. 명상은 사실 일종의 휴식이죠. 당신 두뇌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앉아서 편안히 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면, 누워서 쉬어도 됩니다. 명상을 즐거운 일로 만드세요. 앞에 꽃을 한 송이 꽃아 놓고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의식을 치르듯이 해도 됩니다. 그게 당신에게 좋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지요. 아무튼 명상을 즐기십시오. 아니면 누워서 쉬세요. 다만 여기 지혜안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은 명상을 즐거운 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좋아하지 않는 두뇌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두뇌는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엄격하게 하면 두뇌는 “난 이것이 맘에 들지 않아.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 여기 앉아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명상을 아주 멋진 일로 만드세요. 좋은 동수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그들 집에 초대받아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같이 뭔가를 하십시오. 그런 후 나중에 놀이를 하듯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런 놀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데나 앉아 명상해도 편안하게 되죠.

우선은 두뇌를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우리

는 성불하려고 너무 서두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두뇌와 영혼 사이에서 분투하게 됩니다. 영혼은 명상하려고 하는데, 두뇌가 놀고 싶어하니까요. 그러니 두뇌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명상을 잘 하고 난 뒤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거나 외출해서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거죠. 명상이 끝난 뒤에 재미있는 일을 하면, 두뇌는 “명상도 꽤 괜찮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를 훈련시키듯이 하면 돼요. (대중 웃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를 훈련시킬 때는 개가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줍니다. 그러면 개는 점점 나아지지요. 때로 우리 마음은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명상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끝내십시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대신 다른 일을 하세요. 달리기나 다른 운동 같은 것을 하다 지치면 자연스레 명상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면 두뇌도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죠. 사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쉽죠. 우리는 두뇌에 너무 많이 속아서 누군가 우리를 격려하거나 손을 잡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나 동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해서 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단체명상에 참석하십시오. 동수들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집에 초대해 커피도 함께 마시고, 서로 왕래하며 재미있게 지내십시오. 때로 함께 밖에 나가 영화도 보고 다른 일도 같이 하며 즐겁게 지내세요. 그러면 명상이 기쁨의 일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작할 때 이럴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자신의 두뇌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두뇌가 만족하도록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두뇌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선 안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명상하는 것을 좋아해서 명상도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는 한동안 머물러 갑자기 더 이상의 명상하고 싶지 않아 지기도 합니다. 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성불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는 동수들의 영향을 받아 영성 서적을 읽고 수행에 관한 테이프도 듣게 됩니다. 불교 경전도 읽을 수 있죠. 좀 앞선 느낌이지만, 삶과 죽음, 다른 사람들의 천국 체험 등에 관한 최신 서적들을 읽고서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 그런 체험을 위해 한층 수행에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보폭이나 생각과 습관에 부합되는 사물을 다루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빨리 바꿀 수 없다면, 천천히 바꾸십시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문답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2/desk2.htm> (미국)

스승님의 농담



후광이 너무 꼭 켜서...

청하이 무상사 / 1992. 1. 1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는 기독교 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고, 예배나 세례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정밀 건강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뭐 하러 병원에 왔겠습니까?”

“그럼, 혹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지나치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루 세 끼를 꼭 제 시간에 먹는 걸요. 밥도 적량만 먹습니다.”

“그럼, 술을 너무 마시진 않았습니까? 술은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끓인 물만 먹는 걸요.”

“지주 밤새워 일하는 건 아닌가요? 밤새는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천만에요! 매일 밤 9시 반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습니다. 이젠 제 일상생활로 하루도 틀리지 않아요.”

의사는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했나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필 수 있겠습니까?”

“육체 관계가 지나친 건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아직 총각이고,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사는 이젠 다른 방도가 없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진 않습니까?”

“맞아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당신 머리의 후광이 너무 꼭 켜있으니까요!”

처가집에 가면

칭하이 무상사 / 1996. 7. 19. 캄보디아 (원문 중국어)

갓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았죠. 게다가 부인은 원래부터 밥을 할 줄 몰랐어요. 잠시 후 새색시가 울기 시작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울긴 왜 우는 거요?” “친정으로 돌아갈래요?” “좋소! 우리 둘 다 거기 가면, 밥은 굶지 않겠군!”



우리 아빠는 하느님?

칭하이 무상사 / 1996. 7. 19. 캄보디아 (원문 중국어)

한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선생님이 아빠에 대해 물어보신대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이예요’ 라고 말하면 되지”

다음날 학교에 가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이는 우물쭈물 하며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니까요?”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까지 스미스씨가 우리 아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제 엄마가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요!”



날마다 신는 양말 때문에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어느 날 아침 토니가 자기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토니 엄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새 양말 신는 거 잊지 말아라!”

“알았어요, 엄마! 새 양말 신을 거예요.”

“내말은 날마다 날마다 새 것을 신으란 말이야!”

“예, 알았어요, 엄마. 날마다 새 것을 신을 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토니가 자기 방에서 나오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이상 발이 신발에 안 들어가요!”



토고 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나 동수들은 이제 그들만의 깨끗하고 편안한 센터를 갖게 되었다

천국으로 가는 빛과 소리의 길

관음사자

가나 주민들은 매우 신실하고 낙천적이며 개방적
이어서 거리를 걷다 보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
두 반갑게 인사한다. 가나 센터는 수도 아크라에서 북
쪽으로 12km 떨어진 아냐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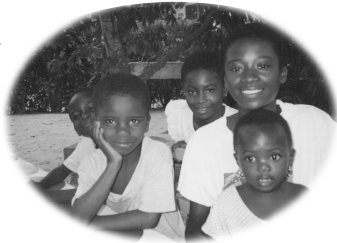
천국의 비밀을 향한 갈망

가나 동수들은 관음법문을 수행한 지 1년도 안 됐
지만, 20년 이상 구도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다. 한 사
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을 알고자 갈망했지만 찾
을 수 없어 방에서 혼자 울곤 했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신에 대한 갈망 역시 더욱 커진 그는 같은 이상을 추구
하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수행단체를 만들어 수행 교
리나 가옥 건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성심을 기울여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그들은

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믿
었으며, 봉사 활동 외에도 수많은 영성 서적을 읽으며
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갔다. 이런 식으로 신을 추구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약간의 소득도 얻었지만, 마음
의 평온과 만족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형은 신약성서의 마가복음
제4장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교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
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묻자 예수는 “하
느님 왕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한다. 문득 이 사
형은 경전을 통해서 그는 그에게 너무나 절실한 신의 왕
국을 알려줄 높은 가르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
고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모두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당당히 그들은 이 수행단체에서 25년을 보

냈지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결국 다른 수행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수행 자료를 수집하며,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



가나 센터의 작은 채식 천사들

제자가 준비되니 스승이 나타난다

나중에 그들은 빛과 소리의 명상을 가르치는 단체를 찾게 되지만, 완전채식을 해야만 그 명상을 배울 수 있었다. 이미 25년을 허송세월 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완전 채식을 하며 내면의 빛과 소리의 명상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완전한 스승은 어떤 공양도 받지 않으며,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제자들을 높은 등급으로 올려주고, 천백억 화신을 나투며, 고귀한 전법의 순간에 천국으로 통하는 비밀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이 ‘암호’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빛과 소리의 명상단체로부터 스승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스승님의 책을 읽고 입문을 할 때, 관음사자에게 “입문식 때 스승님이 그 ‘암호’를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물었다)

원래 그 수행단체는 입문 전 1년 간 채식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입문을 요청했을 때는 다시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들은 좌절했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깨달은 스승의 인도 없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요원했던 것이다! 그들의 갈망은 불안과 실망감으로 바뀌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자 마침내 하늘도 무심치 않아서 어느 날 그들은 한 도서관에서 ‘즉각 깨닫는 열쇠 3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그들이 그토록 알고자 했던 답이 있는 것을 보고는 경악하게 된다. 그들은 본부에 편지를 보내 본부로부터 토고 센터에 입문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라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 18명의 가나인들은 한 번에 돈을 모아 4명 씩 토고 센터에 보내 입문시켜 결국에는 모두 스승님을 따르게 되었다.

었다. 토고 센터에서 그들은 스승님의 책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여태껏 읽었던 그 모든 영성 서적 중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가장 끌렸다. 한 사형은 스승님의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젊은 스승님이 그토록 오묘한 가르침을 완벽하고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에 놀랐다고 한다. 아주 빠르게 그들은 스승님의 책을 모두 읽어버렸다.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입문 전에는 신에 대해 인간을 별주는 절대적인 권위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너무 멀게 느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으며, 신은 바로 무한한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상 낙원

수년 간 봉사활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가나 동수들은 편안한 명상센터를 지을 형편이 안 돼 한 사형의 창고에서 단체명상을 했다. 그곳은 덥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진리를 찾는 환희로 그들의 내면은 자극히 만족스러웠다. 그들은 또 매달 토고 센터의 단체명상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승님의 사랑의 인배 덕분에 토고 센터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깨끗하고 편안하게 바꿀 수 있었다. 먼저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센터의 벽을 새로 칠하고 지붕을 고친 후 선풍기를 몇 대 달아 명상홀을 만들었다. 그리고 명상홀 옆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경서 대여소를 마련했다. 창고 밖의 환경도 완전히 새로 단장해 간이 차양막을 세우고, 길을 포장했다. 또 먼지가 날리던 땅엔 잔디를 심어 아주 매력적이고 위생적으로 만들었다. 주변의 작은 숲은 수년 간 쌓인 썩은 나뭇잎과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깨끗한 하얀 모래를 깔았다. 거기에 예쁜 의자와 탁자 몇 개를 놓으니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기에 딱 알맞은 곳이 되었다. 더럽고 불결했던 작은 숲이 동수들의 아이들이 놀기 좋은 천국이 된 것이다.

어머니 스승님,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가나 동수들은 내면의 희열을 표현하기 위해 경쾌하고 아름다운 가락에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든 가사를 붙인 수행가곡을 몇 곡 작곡했다. 그와 더불어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 스승님을 위해 특별히 노래한 곡을 작곡해 어머니날을 축하드렸다.

오, 창하이 스승님,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존귀하고 다정하신 어머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셔
수많은 어머니날을 맞이하시고
당신의 아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저 길로 인도하소서



단체 명상 후 동수들이 수행가곡을 함께 부른다. 이 천상의 음악에는 그들 가슴속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노래를 원음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2/qym.htm> (미국)

영혼의 고양



창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

<영문>

E79 (5개)

인과의 법칙

1999년 8월 4일

미국 뉴욕 마리웃 호텔 집단명상

1999년 중추절 첫째 날 공연

1999년 9월 25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 센터

중추절 기념-우리의 완전한 본성 (1)(2)

1999년 9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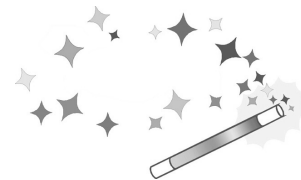
스승님과 보낸 할로윈 주말 (1)(2)

1999년 10월 30일/31일 미국 LA 센터 단체명상

E76 (E76의 5번째 것)

천상의 지복은 단순한 진리에 있다

1999년 12월 1일/ 2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세계 종교 회의



창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영어 + 중국어 자막>

639 영혼은 인생의 여정을 스스로 결정한다

1998 12월 16일-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선상

신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8.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선상 (원문 영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도움이 절실한 이 세계에 이렇게 자비롭고 선량한 성인이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 세상,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잘 해준 데 대해서도 역시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우호적인 도움 덕분에 우리는 신이 주신 임무를 많이 수행해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운 선물과 위로품 속에 깃든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으므로 기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신이며, 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비롯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지요. 단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다니, 정말이지 큰 축복이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가끔 '무슨 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대중 박수) 우리 때로 생활 배경과 습관의 차이로 서로 개성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개성의 충돌이나 에고 문제는 매일 더욱 커지는 여러분 자신의 위대함과 사랑에 비하면 사소하고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자

여러분이 성인의 대열에 들어선 이상, 여러분이 위대한 사랑을 표출하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과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입니다. 설령 신이 따로 존재한다 해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사랑과 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위대해지고 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혀 비난과 기도를 들어 주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드러낼수록 신의 품성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수행을 막 시작해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내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많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내면에는 단 하나의 신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자신 앞에 그 신을 나타낼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지요. 달리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늘 "스승이라면 훌륭해야 하고 이리저러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따를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스승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므로 스승도, 제자도 없습니다. 조금 앞서 걷는 사람, 즉 뒤에 올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먼저 걷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뒤에 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신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에 거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스승이 얼마나 많은 강연을 하고 일장연설을 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신이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죠. 그리고 신이 나타나게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그 지혜와 사랑, 위대함의 근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문제나 습관 때문에 자신의 진아를 찾는 데 장애가 생겨선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일깨워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 위대함을 키울 때마다 우리의 진아가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삶의 반경을 넓히고 자아를 확장해 더욱 위대해지는 것이죠. 아니,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위대하니깐요. 지금은 그 위대함을 이용하는 것이죠.

거액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어도 꺼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있지요. 나는 지금 혼자 있어서 가끔은 행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돈을 내준 출납원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원래 내 돈이었더군요! (대중 웃음)

지금 우리 모습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적,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그건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 즉 자신의 위대함과 내면의 보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행운에도 감사히 여기는 것

이죠. 고맙게 여기는 건 좋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여러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낼수록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보물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신의 사랑, 신의 힘을 활용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스승이며, 신의 자녀이자 우주 최고의 존재, 영광일 뿐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혹은 그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좋은 나쁜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건 바로 우리니깐요. 그러나 좋은 일만을 창조해 이 지구에 신성(神性)을 전하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부정적인 예측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명상 중 더욱 집중하여 이 힘을 일깨워 온 우주를 여러분 손 안에 넣고,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위대하며,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본질을 일깨우라고 알려 주는 것 외에 많은 도움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상심하거나 물질세계의 장애물에 끌려갈 때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유일한 진리는 긍정적인 힘이며 신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무엇이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길 신이 원하기 때문이죠. 신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왜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 농담한 건가요? 아니지요. 그는 우리를 놀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니깐요. 그러니 그것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믿음이 약해 진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긍정적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에 잘 대처해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털어 버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하십시오. “나는 실패할 거야, 이 사업은 망할 게 틀림없어. 승산이 전혀 없어. 본전도 못 찾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난 성공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설령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더 낫단 말인가요?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손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뇌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중이므로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진 마십시오. 다음 번에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시도하다 보면, 최소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에 익숙해질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은 기분 좋게 만들죠.

가식적이거나 마지못한 웃음이라도 신체 세포들이 행복한 기분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웃으면서 우리 신체에게 행복한 기분을 만들라고 왜 지시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에겐 행운이 따른다는 것도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지지해줄 관음법문을 활용해 한 번 해보죠. 좋습니까? (대중 박수)

다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설사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계속 좋지 못한 경험을 한다면 거기 매달리지 말고 말하세요. “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 열 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환경을 새로 바꿔 다시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이

란 여러분이 장애나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난 이곳을 벗어날 거야. 내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하면서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벽을 부수고 나와야지요. 그러므로 긍정적이란 일이 잘 되지 않았어도 자신을 실패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위해 다른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소득도 없는 계획에 내 에너지를 낭비는 대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계획에 제대로 투자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상황에만 머물러 계속 실패만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손실이지요. 어떤 계획에서 한두 번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실패가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닐 때도 있고, 우리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이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늘 실패만 하는 데다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실패자라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이 긍정적인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이진 정말 좋지 않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다면, 제때 그만두고 바꿔야 합니다. “스승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난 이 산이 움직일 때까지 꼼짝도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하며 산을 옮기려고 할 것까진 없어요.

여러분은 기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안배도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항상 어려움 속에 갇혀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 끝을 봐야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완고하고 고집스런 것이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잠시 명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있으면, 명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결실이 있을 것인가? 계속할 만

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가치가 없다면, 용기와 지혜를 갖고 그만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해선 안 되죠.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노력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서로를 자유롭게 풀어 줘 남은 여생을 더 긍정적인 일을 하며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종종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계획, 어떤 관계에 투자할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죠.

명상은 편안하게

그렇지만 결코 명상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빛을 못 보았어도 내일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빛을 못 봤다고 정말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늦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의가 산만해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의 지혜안은 그 빛을 보지만, 두뇌는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중 박수)

빛을 못 봤다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다시 해보십시오. 빛을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힘들일 필요가 없죠.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듯이 문제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해도 돼요. (스승님이 우스운 자세로 누워 보이심. 대중 웃음과 박수) 명상할 때 물구나무서기를 해도 됩니다. 어떤 자세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조르거나 감사하진 마세요. “난 이미 20, 30분이나 앉아 있는데, 신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말이죠. (대중 웃음) 우리가 유한한 두뇌의 능력에 갇혀 있으면, 두뇌를 초월한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놓치는 것이죠.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빛이나 소리를 기다리지도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자연스레 율테니까요. 그저 스승과 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십시오. 난 여기 앉아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대중 박수) 아니,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지혜안에 집중한 채 오불 중 한두 구절만 외워도 됩니다. 빛이 그다지 밝은 것 같지 않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격렬한 운동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명상이 잘 되는데, 그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내면에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명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빛이 오게 되죠.

처음에는 그리 밝지 않아도 거기 뭔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빛이나 늘 보는 광경과는 달리, 앞에 어떤 화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텅빈 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손가락을 앞에 놓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기도 하죠. 눈을 뜨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보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지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자리가 있다는 건 내가 보장하지요. 그러니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대중 박수)

신실함과 갈망만 있으면 됩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압니다. 그가 모른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바보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신을 보러 간들 뭐하겠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여러분이 정말 신을 믿는다면, 신은 반드시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놀라거나 신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하느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은 모두 진리이며, 특히나 관음수행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장할 순 없죠.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선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양 구어루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신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비디오에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긍정적인 힘이며, 신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무엇이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길 신이 원하기 때문이죠.” 스승님의 추천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의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과 고귀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유대인 수용소 생활 중에 일어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섬세한 내레이터 형식을 통해 주인공의 신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는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아내와 아이가 사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그의 아이가 잔혹한 외부 현실에 물들지 않고 어린애다운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온 마음을 다 바친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부분이 있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에만 의존해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보고 듣게 되는 일들을 참기 어려워지자 “이 모든 건 놀이일 뿐이다”라는 아버지의 말도 거의 믿을 수 없게 된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매우 슬프게 말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태우거나 끓이는 화로가 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즉시 반박한다. “너는 속은 거야. 너는 뭐든지 믿는구나. 난로는 들어봤어도 사람을 태우는 화로가 어디 있다는 거니? 웃기지 마.” 아이는 또 묻는다. “그럼, 왜 다른 애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 혼자지요?” “그 애들은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모두 숨

어 있는 거란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바로 웃음을 되찾아 아버지와 함께 이 인생이란 연극에서 ‘놀이’를 계속하게 된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성품은 마야의 잔혹한 환상의 영역에서 아이를 구해 내 두 사람은 외부에 나타난 마야의 연극을 웃어넘긴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연극 구경하듯이 바라보며 수용소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다. 이 장면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인생은 아름다워’ 하며 살았던 것이다! 나는 정말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들이 일반 세속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연극에서 우리와 놀아 주기 위해 천상에서 내려온 불보살이나 우리 스승님처럼 고귀한 존재라고 확신한다. 그분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 인생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칭하이 무상사/ 1998. 12. 18. 미국 캘리포니아 L.A 국제선삼 (원문 영어)

때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선택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면 이 천국에서의 특별한 선택을 잊게 되어 이제는 그것이 인생의 장애나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축복은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요. 그래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강한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떤 선택이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환상이니까요. 그 대신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 대신에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역시 많지요. 그 중에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많이 있는 셈이지요.

어렸을 때 나는 아주 작았는데, 사람들이 놀려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작기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전의 그 사람들이 정말 형편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 우리는 때로 더 어려운 수행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좋아, 나는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아주 키가 큰 사람, 또는 빨리 진보해서 신을 찾기 위해, 또는 나와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일 거야!” 하지만 이곳에 오면, 우리는 두뇌를 갖게 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너무 불리하다고 느끼는데, 그건 두뇌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돌아가거나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외모는 전혀 중요치 않으며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천국을 발견하여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불리한 조건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입은 옷일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따라 오지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위 강연을 원본 비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2/mt1.htm>(미국)

칭하이 무상사 / 1998. 3. 10. 영국 런던 단체명상 (원문 영어)

질문: 빨리 진보하려면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명상을 얼마나 해야 빨리 진보할 수 있나요?

스승님: 당신 자신의 느낌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명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명상하고 싶은지 느껴야 하지요. 또한 진보는 명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난 정말 이것만을 원한다'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다짐해야 가능합니다. 진보하기를 내면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명상은 내면의 성심에서 비롯된다

질문: 그럼,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느낌의 정도 역시 관계가 있습니까?

스승님: 물론입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 사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하죠. 우리는 그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말할 수 있지만, 개개인마다 신에 도달하는 고유한 방식이 다릅니다.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성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렸지요. 언젠가 이 세상과 가식, 환영에 지쳐 싫증을 느끼게 되면, 내면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명상하던 상관없이 성심으로 신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이 몹시 편안해진 상태에서 진심을 기울여 명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이 헌신적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력에 그쳤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차이지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문답 내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2/desk1.htm> (미국)



우리는 사랑을 대표하며, 신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려 애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대해지고 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 1998. 12. 18. 미국 L.A. 국제 선삼 (원문 영어)

신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신성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 1998. 12. 18. 미국 L.A. 국제 선삼 (원문 영어)



어머니의 마음

씨에슈천 사저/ 포모사 타이충



첸첸은 우리 반의 두 명의 채식 학생 중 하나이다. 학기가 시작할 때면, 우리 학교는 채식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숫자를 조사하는데, 나는 항상 채식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보살피며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다. 그 중에서도 부끄러워하면서도 밝게 빛나는 첸첸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귀엽고 사랑스런 마음이 들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나는 학생들의 부모들과 친숙해졌다. 방과 후 부모들은 아이를 태워가려고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첸첸의 어머니가 미취학의 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이 끝난 두 아이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요즘 세상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울까 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센터 단체명상을 참석하고 명상홀을 떠나려는데, 첸첸의 어머니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서로 “사저님!” 하고 외치며, 그제야 우리가 자비로운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사정을 차츰 알고 보니 사저 부부는 입문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입문 후 4명의 아이가 연이어 태어나 사저는 하루 종일 가정과 아이를 돌보고 사형 역시 공장 일에 더 바빠져 계속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사형의 공장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1천만 NT(한화 4억)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 불행히도 다음 날엔 사저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어 사동생이 뇌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연이은 불행을 겪은 사저는 인생의 무상함과 악하기 짝이 없는 범부의 존재를 재삼 뗏속 깊이 실감하며 그때부터 스스로 반성하며 스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얼마 후, 어느 날 사저는 꿈에서 환하게 빛나는 스승님이 놀라운 자비심과 사랑 속에 그녀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스승님은 다소 실망하신 안색이었지만, 사저에게 큰 기대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선 관음법문을 잘 수행한 다음 다시 얘기하지요!” 사저는 마음 깊이 참회하면서 스승님이 한순간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저는 이제 단체명상이 있을 때마다 네 아이와 함께 참가한다. 그리고 종종 “명상을 해야 힘이 생겨요!” 하고 말한다. 또 아이들은 자신이 배워야 할 신이 안배한 ‘사랑’의 공부이며, 언제나 우리 곁을 돌보시는 자비로운 스승님의 큰사랑과 인내심에는 비할 데가 아니라고 한다. 어쨌든 이 사저는 인내심을 키우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또 다시 ‘길 잃은 어린양’이 될 건지 묻자 그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떠나신 아버지

어린이 입문자 장 / 중국 대륙



나의 어머니는 스승님의 제자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나와 아버지는 많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차츰 채식도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채식을 하게 된 주 동기는 몸 때문이었는데, 채식으로 자신의 백혈병이 낫길 기대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채식을 한 후 별다른 효험이 없었던 데다 다른 장애마저 생겨 아버지는 채식을 포기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스승님의 비디오와 테이프를 계속 틀어 놓으셨다. 얼마 후 아버지는 집에 있는 스승님의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읽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고, 채식과 수행이 육체가 아닌 생사해탈을 위한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어린애 같은 행동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손에 스승님의 사진을 들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위대한 어머니 스승님, 이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참회를 하는 순간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아버지는 스승님의 너그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다. 그리고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 덕분에 채식을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끝까지 하실 수 있었다.

아버지의 병은 너무 늦게 발견되어 심각한 상태여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지만, 상태가 위급할 때마다 화신 스승님이 병원에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꿈에서 입문시켜 주시기도 했다. 아버지는 스승님은 정말 위대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스승님에 대한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셨다. 한 번은 두 손에 스승님의 법상을 받쳐들고 “저는 살아서도 스승님의 제자요, 죽어서도 스승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한 마디 말씀도 못하고 애써 몸짓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려 하셨다. 그때 가리키신 건 녹음기였는데, 불찬을 틀어달라고 하신 거였다. 우리가 스승님의 불찬을 틀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당신 생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분명 그토록 갈망했던 아름다운 영혼의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다.



진정한 효도의 길

장 치우띠엔 사저 / 포모사 타이베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맞이한 청명, 이 날은 조상들의 묘를 찾아 예
를 올리기도 한다.

나의 부모님은 효성이 지극한 분들이었다. 조부모님의 생전에는 지성껏 봉
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매일 집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해마다 성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에게 ‘효는 모든 덕의 으뜸’ 이라고 가르치시곤
했다. 할머니는 생전에 행복하시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뒤 나는 꿈에서 몇 번 씬 적이
있다. 처음 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침울하게 앉아 계셨다. 그리고 내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꿈을 꾸었을 때는 가족들
과 같이 앉아 계셨는데, 기분 좋게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날이 너무나 밝았는데, 할머니가 친구 분과 함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가만히 문가에 서서 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애가 우리 집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친구 분은 놀라서 순간 작게 소리치셨다.
“바로 저 애라고!” 내가 막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 “셋! 좀 조용히 해. 애가 깨겠어” 하고 할
머니가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할머니와 친구 분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
데, 할머니는 30살처럼 젊어 보이셨는데, 주름살도 하나 없이 피부도 하얗고 매끈하고 매우
편안하고 근심이 없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친구는 할머니가 부러운 양 나를 바라보았다. 그
분은 자신의 선업으로 천상에 갔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내려와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
족 중에 관음법문 수행자가 있어서 쉽사리 천상에 올라가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더 높은 경
지에서 수양하실 수 있고, 해아릴 수 없는 복이 남아 있었다. 친구 분은 자손에게 한 사람이
라도 좋으니 관음법문을 수행하라고 알려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할머니
는 아무런 아쉬운 기색도 없이 그저 평온해 보이셨다. 나는 우주의 힘이 할머니를 돌봐 그토
록 즐거우신 것을 알고 기뻐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대화로 알 수 있었으며, 말이 필요 없었
다. 할머니와 친구는 방에서 사라지신 후, 생활에서나 꿈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있었던 일인 양 아직도 생생하다.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눈물을 글썽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스승님은 유형 무형으로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 제자들 역시 완
전히는 알 수 없다. 무형중생들도 스승님을 아는데, 인간만이 선입견에 가려 스승
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스승님은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정말 복
이 많아 살아있는 스승으로부터 관음법문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 관음
법문은 우주의 수많은 중생들도 모두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것이므로 우



칭하이 무상사

1988. 11. 2. 포모사 핑통 (원문 중국어)

우리는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삼계 이 내의 브라마라 해도, 죽은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야 하며 그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되죠. 그러므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가련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들은 한 번 떨어지면 헤어질 수 없이 긴 수천 수억 년이 지나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올라온 다음에도 바로 사람이 되지 못하며, 사람이 되어도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염려해 주며 손을 잡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깨달은 스승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나 그런 스승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냥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만한 보험에 들어 있어서 만능 보험회사가 우리를 보장해 줄 겁니다. (대중 웃음과 박수)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보살이 도울 틈도 없이 찰나에 떠나버려 그들의 영혼이 의지할 곳도 없게 되죠.

하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매우 안전하며 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 영혼은 매우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평온한지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두뇌는 모르지만 우리 지혜는, 우리 영혼은 압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좋지요. 그러므로 인과나 정업을 피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가 망가져 수십만 달러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수십만 달러씩 하는 차도 감히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니까요. 때로는 실제 손실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 주기도 하죠.

우리의 관음 만능 보험회사는 이보다도 더 강력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차'가 고장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완전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몸, 더 나은 도구, 더 아름다운 옷,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세계를 받게 되고, 더 즐겁고 안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내면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천만점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관음법문을 만났는데,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신이 온다 해도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관음 만능 주식회사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

수잉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신의 안배로 인연을 맺다

설 휴가 동안, 나는 몇몇 동수들과 함께 중국 본토 여행을 떠났다. 하루는 관광 가이드가 양조장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마시지도, 사지도 않는데 양조장에 가서 뭘 하겠는가? 하는 두뇌의 생각에 망설였다. 그때 스승님은 같이 여행하던 동수를 통해 이것이 어찌면 해묵은 관념을 없앨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치에 맞는 말이어서 나는 마음을 바꿔 생각했다. ‘만일 신이 우리가 양조장을 방문하길 바라셨다면, 무언가 숨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난 흔쾌한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려 양조장을 견학했다. 떠날 무렵, 우리는 견학을 시켜준 양조장의 안내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줬다. 그들은 그 견본책자를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양조장에서 나와 버스로 돌아오며 이번 경험이 양조장에 올 마지막 기회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스승님의 복음과 법상을 갖고 포모사에서 천리도 넘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이곳에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전의 낡은 관념에 묶여 양조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스승님의 축복을 전해 줄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생각은 신의 뜻을 거슬러 해탈을 갈구하는 영혼들에게 스승님과 인연을 맺을 기회를 잃게 했을 것이다.

서호를 유람하며 스승님께 감사드리다

우리는 항저우의 서호에 도착해 큰배를 타고 고용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유람했다. 그동안 작은 증기선과 더 작은 나룻배 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배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공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지만, 어떤 배는 빈 채로, 어떤 배는 얼마 되지 않는 손님들만 태우고 있었다. 문득 나는 우리가 타고 있는 큰배가 스승님이 자비롭게 항로를 이끌어 주시는 관음법문호(觀音法門號)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안전하고도 빠른 배를 타고 어려움 없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승님의 고귀하고 크나큰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진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저 작은 배들처럼 피안에 닿기 위해 애써 노를 저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수많은 중생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쳤다. 그에 반해 우리 동수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산중기담 (山中奇談)

스승님의 사랑이 일구어낸 기적들

스승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중 하나는 타이쑹의 산중에서 있었던 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야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승님은 공개 강연을 하시지 않아 제자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스승님은 타이베이 근교의 신디엔 도장에서 머물던 우리에게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즉시 짐을 싸서 떠나라고 하셨다. 평소 우리는 10분 이내에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동작이 느리면 뒤에 남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스승님의 훈련은 군대 훈련보다도 더 효과적이어서 손놀림이 둔한 나이 많은 출가승들도 충분히 따라갈 정도였다.

우리에게 작은 트럭 한 대만 있었을 때라 스승님이 조수석에 앉고 다른 제자들은 짐들과 함께 적재함에 몸을 싣고 어렵사리 출발했다. 출발 당시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타이쑹의 외곽을 지나 어떤 버려진 산장 옆을 지나려는데 스승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 곳을 살펴보라고 하셨다.

그곳은 소유권 문제로 반쯤 짓다 만 산장이었는데, 잡초만 무성했다. 물, 전기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아 황량해 보였다. 그 집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외딴 곳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출가승들을 이상히 생각하곤 말을 걸어왔다. 채식을 하는 일관도 신자인 그는 우리가 머물 곳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애써 권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떤 산장의 관리인으로 관리인 사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택에는 물과 전기가 있었는데, 마침 다른 볼 일로 집을 비우게 되어 우리에게 일주일 정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는 이 '빌라'에 짐을 풀게 되었다. 스승님께서 꼭 방앗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거저 살지는 않았다.

그곳은 말이 좋아 산장이지, 사실 수많은 모기를 제외하곤 별 다른 게 없었다. 마침 한여름이라 모기 부대는 기승을 부리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내 평생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어 남자들은 아래층에서 자고, 스승님은 2층에 있는 유일한 방에서, 여자들은 스승님 방에 딸린 작은 거실에서 지냈는데, 사실 스승님 방도 문 없이 바로 거실로 통하게 되어 있어서 모기의 공격을 막을 순 없었다.

우리는 무수한 모기떼에게 물리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낭으로 감쌌다. 더위 죽을 지경이었지만, 밤새 모기떼에게 파티를 열어 주는 것보단 나았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폭격기를 연상시키며 웅웅거리는 모기들의 단조롭고 지루한 소리였다. 그때 방에서 나오다가 우리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신 스승님이 이렇게 더운 날 왜 미이라처럼 몸을 싸매고 있냐고 물으셨다. 이유를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당신 방엔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확인하러 바로 스승님 방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모기의 '모'자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모기들은 우리들만 물고 스승님에게는 감히 접근도 하지 않은 채 존경을 표했던 것이다.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업장이 없어서 모기에게 물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중생들의 업장을 짊

어졌을 때에만 그 업장의 냄새로 모기에게 물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모기들의 폭격을 속에서 누에고치처럼 잠을 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들 무렵에는 그 성가신 소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승님께 모기들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스승님의 신통이 정말 큰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웃으시며 유리잔을 몇 개 가리키며 이 잔들이 바로 신통이라고 말씀하셨다. 밤중에 일어나신 스승님은 모기들에게 물릴까 뽀뽀 싸매고 있는 제자들의 불쌍한 모습을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 그 찻잔으로 모기들을 잡아바깥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스승님이 거의 2백 마리 되는 모기들을 내보내셨으니 우리가 편히 잘 수 있었던 게 당연했다.

며칠 후 우리는 타이쑹의 산장을 떠나 근처의 이름도 모르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작은 트럭은 거친 길 위에서 덜컹거리며 춤을 추었다. 몇 군데서는 굽은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아 길이 끝난 것처럼 보여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스승님은 계속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 곳을 지나자 신기하게도 길이 나왔다. 하지만 조심한 제자들은 이런 모험들로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외진 산간이라 길이 좋지 않은 데다 좁기도 해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트럭은 몇 번이나 낭떠러지를 끼고 산 쪽에 비짝 붙은 채 간신히 통과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목숨이 오락가락 했다. 물론 스승님의 축복으로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했지만 말이다.

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 두번째 만남 역시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로 그 역시 채식주의자였던 것이다. 농부가 산중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쓰라고 해서 찾아간 오두막은 아무런 살림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 집의 앞부분은 자봉도 없었는데 여자 출가승들이 거기서 자고 스승님은 뒤쪽은 작은 창고에서 주무셨다. 처음에 스승님은

자봉 없는 곳에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의 강한 권유로 포기하셨다.

잠자리가 편한지 염려하신 스승님이 여러 번 물어보시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미 수많은 모기떼들의 공격을 경험한 지라 고요하고 시원하며 모기들도 없는 오두막에서 잠자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처럼 느껴졌다. 또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마치 대지의 왕국에 와있는 것 같아 정말 감격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우리가 자던 사망이 자봉이 없어서 밤새 내린 이슬로 젖어있는 데 반해, 우리 침낭과 그 주위는 그대로 말라 있는 걸 발견했다.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일의 연유 역시 알 수 있었다! 광친 노스님(고행으로 유명한 포모사의 스님)이 밤새 바깥에서 명상을 하면 그와 그의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수행이 높은 것도 아니었으니, 이 현상은 우리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이 일을 스승님께 바로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웃으시며 우리가 밤새 이슬에 젖을까 염려했더니 이런 신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설명하셨다. 스승님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거나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니다. 그저 제자들의 건강을 염려했을 뿐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이걸 모두 스승님의 ‘함이 없이 하는’ 기적이었다.

우리는 산중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스승님께 평소 훈련받았던 야생 생활 능력을 응용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타이쑹 산중 여행은 단조로웠던 내 인생의 캔버스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그려 넣으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꿈은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번 산중 경험으로 그 마음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글 한 원



예술과 영성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지



지 역 : 포모사, 동남 아시아, 중국 본토
TV 채널 : 32번 ETTV
프로그램 :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예술 창작품 및 생활 비디오 방송,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 세계 활동 보도
시 간 : 2001년 5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방송
언 어 : 영어, 중국어, 어울라어 (자막+해설)

‘예술과 영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예술 창조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종종 영적인 고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래서 잠재된 창조력과 재능을 계발시킨 수행자들은 스승 없이도 경탄할 만한 예술 창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 방송은 영성과 예술을 융합한 독특한 접근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매 주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전당을 유람하면서 천국의 경치를 체험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예술혼과 무한한 영성의 지복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세계 소식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 세계적 영성 활동과 구호 및 자선 사업 등이 정확하고 생생한 방송으로 소개한다. 세계 종교회의, 심령 박람회, 국제도서전, 예술 행사, 자선 음악회 등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를 다뤄 시청자에게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 세계적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한다.

칭하이 무상사의 정선된 강연 :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은 항상 부드럽고 막힘 없으며, 재치로 가득하다. 또한 쉽고 간단하게 청중들의 이해를 도와 오묘한 우주의 섭리를 전하고 의문들을 풀어준다. 이제 ‘예술과 영성’의 방송으로 가정에서도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로 충만한 영혼의 말씀을 즐기며 신의 복음에 폭잡길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대륙의 시청자들은 각 지역 위성TV 제공사업자를 통해 이 방송 시청에 필요한 기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방송주파수	MHz	전송속도	FEC	TV 채널	TV 시스템	위 성 명	비 고
12530V	1230	30000	3/4	U-2 ETTV	NTSC	75.5도 (아태 2R)	중국위성방송 시스템-4

이 위성방송 가설에 관한 문외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gol.163.com/~fcglyj> (중국어 간체) <http://wstv.3322.net/> (중국어 간체)

<http://www.lyngsat.com/apstar2r.shtml> (영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의 최근 방송시간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TV 방송용 ‘예술과 영성’ 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연락해주시시오.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타이난 교도소 영성 세미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사회 및 종교단체의 교도소 교회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법무부의 지원에 힘입어 2001년 3월 14일 타이난 교도소 자원봉사자를 위한 세미나 참석 이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속하여 9차례의 영성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천여 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했다.

수십 명의 동수들과 관음사자들은 이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정은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관음사자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영적인 분석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격려의 말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며, 인생의 방향점을 잘 잡으라고 했다. 또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이 형제자매들에게 수행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 깨달은 바와 변화를 함께 나눴다.

이번 영성 세미나에는 재소자들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도록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안배했다. 동수들이 열심히 공연한 가벼운 율동과 노래, 농담, 재미있는



재소자들이 동수들을 따라 율동과 노래를 함께 하다

이야기 등으로 재소자들은 크게 웃으며 자신이 있는 곳도 완전히 잊었다. 그 순간 서로 간의 거리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 모두들 가족이나 친구처럼 되었다.

행사 중에는 관음사자가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하는 시간도 예정되었다. 명상 후 그들의 눈에서는 광채가 흘러 우리는 그들이 신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고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소자들이 수행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며 스승님의 책과 잡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자 관음사자는 그에 대해 일일이 답변해 주었다.

마지막 날, 재소자들은 줄지어 걸어가며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작별을 고했다. 떠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언제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으며, 교도소장은 동수들이 보여 준 진실하고 애정 어린 헌신의 정신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우리 역시 작은 마음으로도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해 준 재소자들과 우리가 재소자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준 타이난 교도소 당국에 감사한다.



동수들이 타이난 교도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재소자들을 격려하다. 교도소장 (왼쪽에서 첫 번째)도 동참했다

교도소 교화활동

[화렌] 2000년 3월 28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화렌센터는 대만 갱생보호소 화렌 지부와 함께 화렌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펼쳤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과일을 갖고 화렌 교도소의 여자 재소자들을 방문했다. 이날,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것 외에도 전문적인 상담

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며 방편법도 전수했다. 방문을 마치며 그들의 얼굴에 비치는 미소를 보며 우리는 샘물처럼 한없이 솟아나는 스승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공연 그 이후 ...

미국 캘리포니아 LA 센터, 엔터테인먼트 팀 보도 (원문영어)



갤릭스톤 악단의 매니저, 드러머 겸 보컬
스티븐 베마이어와의 인터뷰



“제대로 된 파티에 가고 싶나요?”

블록버스터 ‘타이타닉’에서 잭(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의 이 은밀한 초대 장면과 함께 갤릭스톤 악단은 전형적인 아일랜드 풍의 음악을 멋지게 연주한 3등 선실의 악단으로 전 세계 영화관객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버진 EMI 레코드사에서 출시된 갤릭스톤의 첫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5위를 차지했고, 이어 두 번째 앨범 ‘Herding Cats’ 역시 비주류 음악잡지 뿐 아닌 대중음악 잡지에서도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2000년 말 갤릭스톤의 매니저이자 드러머 겸 보컬인 스티븐 베마이어는 세계 순회공연의 바쁜 와중에도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엔터테인먼트 팀과 만난 자리에서 1998년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창하이 무상사에게 안부를 전했다. 다음은 베마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엔터테인먼트 팀(이하 문): 갤릭스톤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스티븐 베마이어(이하 스티븐): 우리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였는데, 아일랜드와 영국 런던, 영국 컨벤트리 사람들도 있고 나는 뉴욕 출신, 여성 멤버 하나는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이지요. 모두 아일랜드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한 캐스팅 감독에게서 ‘타이타닉’의 3등 선실 밴드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지요.



문 : 그게 일대 전환점이었군요?

스티븐 : 정말 그랬어요. 우린 1996년 3월에 결성되었는데 그해 6월에 ‘타이타닉’에 합류하게 되었지요. 모든 게 전등석화처럼 이루어졌어요.

문 : 오스카상 수상자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일하는 기분은 어땠나요?



스티븐 :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잘 해주셨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릴 너무나도 잘 돌봐 주셨지요. 촬영장에서도 매우 여유롭고 멋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창작성에 충실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진짜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는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곳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의미를 담고자 노력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문 :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이란 멋진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스티븐 : 우리에게 가장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순화공연한 지 미처 1년도 못 되어 쉬리인 강당 공연을 요청받았으니까요. 쉬리인 강당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레미상이나 오스카상 시상식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곳인데, 우리가 12월 18일 그 무대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멋진 연주회장에서 공연했다는 것 외에도 그 음악회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대한 자선 음악회에 참여해 뭔가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행사를 통해 비치보이스나 빌 콘티와 같은 훌륭한 음악가, 작곡가들과 자리를 함께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물론 스승님과 만남은 더욱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문 : 창하이 스승님의 음악과 음악계의 걸출한 친구들이 곡을 붙인 그녀의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는 원래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의 첫 부분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고, 음악회 당일까지 우리 공연 외의 행사에 대해선 막연히 알고 있을 뿐 사실 잘 몰랐지요. 그러다 그날 무대 뒤에서 이 놀라운 음악과 함께 창하이 무상사님의 시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나 탁월하더군요. 예의 카메론 감독에서처럼 그런 완벽한 예술성을 갖춘 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엔 심오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아주 예술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감성과 아름다운 생각들로 인해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공연에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스티븐 :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콘서트에 참석하며 우리는 음악이 우주공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멤버들은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은 세계 각지에 있었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 공통의 언어로서 악단을 결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음악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고 평화를 발전시키는 힘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선을 위한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통합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확실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기금을 모으거나, CD나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모두 우리가 믿고 싶은 특별한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 아직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 어떤 일이든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꺼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전에 말했듯이 음악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를 축하하며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했다면 음악가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지요.



문 : 아, 그리고 VIP 라셉션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만날 기회가 있으셨지요?

스티븐 : 예, 그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 아내 케리와 전 피로연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곤 여기저기 다니며 그림과 보석, 의상 디자인 등 스승님의 다른 예술 창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소개받을 것이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 뵐 수 있어 감격스러웠습니다. 스승님은 대단히 놀라운 분이셨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우아하셨지요. 사실 스승님이 음악회장에 들어서셨을 때는 직접 인사를 나눌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뜻밖의 멋진 만남이었지요.

문 : 게다가 저녁식사에도 초대되었잖아요. 어떠셨나요?

스티븐 : 예, 그랬습니다. 매우 특별했죠. 케리와 나는 스승님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그저 음악회장에서 의례적인 인사나 나누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앉아 식사도 같이 하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스승님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용기를 갖고 많은 인생 경험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 경험들을 아주 생생하고도 감동적으로 들려 주셨어요. 그런 분과 자리를 함께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 편안히 앉아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들으며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굉장했지요.

문 : 그럼, 스승님만의 베트남 커피를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겠군요?

스티븐 : 예,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후론 베트남 커피를 아주 좋아하게 됐지요. 스승님께서는 다른 많은 점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 커피에 대해선 특히나 감사드려요.

문 : 굉장히 아름다운 반지를 끼셨는데, 좀 보여 주시겠어요?



스티븐 :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반지인데, 호의로 제게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 스승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오르지요.

문 :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티븐 : 전 음악가이면서 민속신화학을 전공하는 UCLA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제 관심 분야는 종교 신앙인데, 다양한 문화권의 인간과 그에 수반된 종교적 반응양식, 그리고 인간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걸 우리 호흡처럼 아주 기본적으로면서도 보편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인 스승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몹시 흥분되었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스승님의 깊은 인간애였습니다. 스승님은 세속적인 생활을 멀리 떠나거나 기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같이 앉아 커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동료 예술가를 대하듯 스승님과 가사에 대해 얘기하고 작곡과 커피, 범부로서의 감정과 경험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더할 나위 없이 멋졌습니다.

스티븐 : 그런 특별한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웠어요. 우리는 그날 라이브 공연을 펼쳤는데, 청중들의 열기를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공연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술이란 것이 무대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시에서부터 우리에게 낯익은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비치보이스의 공연도 제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본 공연이 비치보이스의 공연이었으니까요. 제가 자란 곳은 뉴욕 버팔로 근교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유명한 밴드들은 들르지 않는 곳이었죠. 그러다 어느 여름날 비치보이스가 마을의 작은 공원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게 저로서는 첫번째로 관람한 공연이었는데, 한 순간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자리에서 비치보이스의 원래 멤버들 몇 분과 같이 공연하게 되었으니 꿈만 같았지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아픈 어린이들에게 보다 밝은 세상을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으로 각자의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의미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저희에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우리는 음악과 이런 공연을 통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날 음악회로서의 가치 또한 전혀 손색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 음악회가 자선 콘서트의 형식이었지만, 연주자와 관중 모두에게 편안히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문 : 칭하이 스승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스티븐 : 그럼, 이렇게 전해 주세요. 스승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악단의 모든 사람들은 스승님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다. 그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도통민 씨와의 인터뷰



로스앤젤레스 센터 엔터테인먼트 팀 보도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베트남어)

수년 간 일본에서 거주 중인 어울락게 인사 도통민 씨가 최근 음력설 휴가를 맞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리틀 사이공에 위치한 ‘음악과 시 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학박사인 그는 일본어-베트남어 사전과 다른 많은 서적을 저술하였으며, 리틀 사이공 라디오의 일본 특파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념 행사 중 가진 도통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질문: 편집자로서 볼 때, 문화적 활동이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라는 말은 거시적으로는 영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철학의 정점으로 볼 수도 있지요. 사람들마다 각자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역시 영성은 모든 면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성과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도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영성 역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질문: 창하이 무상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대답: 8년 전인가 10년 전쯤 창하이 무상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아마 1993년 일본 강연에서 처음 만났던 것 같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영성이나 종교에 관해서는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합당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스승님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사회 복지 및 영성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된다면, 영적인 삶을 고양시키고 어울락인들과 다른 자연재해 이재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은 많은 사

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그분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창하이 무상사께서 거의 모든 곳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재난이 발생한 곳마다 그녀의 도움만 있으면 화생자들의 고통이 한층 경감되었지요.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주변 동수들은 물론이고 멀리 미국 동수들까지 즉시 달려와 구제활동을 펼쳤었지요. 저는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의 고통이 덜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전 받은 책은 인쇄,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상하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더군요. 다만 아직 다 읽 어보지 못 한데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 자리서 자세 한 논평은 할 수 없겠군요. 하지만 우리로선 어울락 태생의 한 시인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어 그 시가 음악 가사로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 그 탁월한 재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 대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성공을 거둔 어울락인은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의 한 부분으로, 혹은 예술 그 자체로 간주되어온 시와 음악이야말로 인류 사고의 결정 체라 생각합니다. 문화는 여러 양상을 띄지만, 시와 음악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간결한 방식을 통해 표출해 냅니다. 창하이 무상사의 이러한 시들은 그분의 자비심 깊은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지요.



해피 요기 세상

꽃의 노래



4월은 온갖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다. 매혹적인 봄의 여신이 하늘거리는 옷자락으로 꽃 봉오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 온갖 눈부신 빛으로 대지를 장식한다. SM천의 팀이 4월을 맞아 '꽃의 노래' 특별전을 통해 꽃무늬 계열의 해피요기 평상복을 선보이자, 동수들은 천지와 함께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옷으로 갈아입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해피요기 시리즈는 꽃이 피어난 듯 눈부시게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기쁨을 전해준다. 그 중에서도 밝은 색상의 남성용 셔츠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스승님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남성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길 주저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래서 특별히 밝은 색상의 남성용 셔츠를 디자인해서 남성들이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가슴 설레는 느낌을 자유로이 표출하길 희망하셨다.

이 '봄의 노래' 특별전에 전시된 해피요기 시리즈의 멋진 의상들은 모두 대자연에 펼쳐진 완벽한 창조물처럼 스승님의 빛과 사랑을 전한다. 의상을 하나 하나 눈여겨보시길!





시후의 봄

백화림

언덕과 들 그리고 평화로운 오솔길 위에
산들바람 따라 춤추는 하얀 꽃들이.

국제 정원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향기
가슴 속 한 가득 스며들고
꽃의 요정들 무지개 빛 정원을 단장했는데.

대나무 숲

해는 따사롭고 바람은 부드러워
대나무 숲에서 잠깐 앉았다
한 순간 눈 떠보니
어느새 세월은 저만치 가고...

어울락 정원

감로강 맑은 물줄기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며
사바세계 먼지를 골골이 씻어낸다

지그재그 다리

물위에 쏟아진 천상의 빛은
지그재그 다리에 비치고
잉어는 우리를 슬며시 훑쳐본다
선경(仙境)이 바로 시후에 있었으니.

다음 시후를 방문하시면 '시후의 봄' 특별 컬렉션을 생생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hsihu/> (미국)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ng/special_report/ (미국)